

아름다운 만남 행복한 결혼

성(性) 바로 이해하기



이 한 선
아트메디 피부·성형외과 원장

올바른 성교육은 아름다운 결혼생활과 관련이 있다. 올바른 성교육은 아름다운 결혼생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결혼은 사랑의 끝인지점이 아니라 출발선이다. 결혼은 자신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만인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약속하였음을 만인에게 알리는 것이다.

올바른 성교육 행복한 결혼생활

사회 여기저기에서 성교육을 한다고 야단법석이다. 대중 매체에서나 세미나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들 성교육은 보통 간호사나 상담가 또는 일선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들의 강좌를 접해보면 대부분 강사 자신조차 성교육이 무엇인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를 보게 된다.

심지어는 여성 생기의 해부학적 구조나 월경과 임신, 낙태 등의 슬라이드만을 어린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경우도 많다. 물론 성교육에 있어서 몸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성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할 성교육은 무엇인가? 올바른 성교육은 아름다운 결혼생활로 나타나게 되고 또 그래야 성교육이 제대로 된 것이다. 따라서 성교육은 결혼생활에 관한 이야기와 깊은 관련을 맺게 된다. 오늘날 이혼이 난무하는 것은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까닭이다.

순결 의미 분명히 이해하기

혼외 성관계는 물론 혼전 성관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공식적으로 만인에게 결혼을



공표하기 전까지 배우자와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구미 선진국에서 성교육용으로 콘돔을 무조건 나누어주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배워야 할 성교육의 핵심은 여성 성기의 구조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것이다. 결혼 전까지 자신의 순결을 지키는 것과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다.

연약함 깨닫고 겸손 배우기

중·고등학교 시절은 성적욕구와 호기심이 가히 폭발할 지경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한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지나친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가 마스터베이션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려 하지 말고 인간은 그토록 분명한 육체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임을 직시하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부모들조차 그러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를 심심찮게 본다는 사실에 필자는 놀라곤 한다. 자위는 말 그대로 나의 육체를 위로하는 것이다. 위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를 지나치게 비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육체의 욕구 앞에 무너지는 자신을 보면서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다면 오히려 겸손을 배우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사소한 일을 즐겨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결혼 사랑의 골인이 아닌 출발

결혼은 사랑의 골인지점이 아니라 출발선이다. 결혼은 자신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만인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약속하였음을 만인에게 알리는 것이다. 따라서 이혼은 계약 위반이다. 많은 수의 한국 남자들은 결혼 전에는 온갖 달콤한 말로 배우자를 유혹하였다가 결혼을 하고나면 현격하게 관심이 줄어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은 배우자를 자기 손에 넣었으므로 함부로 다루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그리되었을는지 모르나 그녀의 마음은 아직도 정처가 없다. 둘이 다 호호 백발이 되어 손을 잡고 산책을 하며 '나는 당신을 만난 것을 감사드리오'라고 말 할 수 있을 때 배우자는 비로소 나의 것이 된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성교육은 이러한 것이다. 요즘 세상에 성교육이 난무하고 있으나 매번 혼란을 면치 못하는 것은 현대 사회의 부모들이 우선 제대로 바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지....

